

우리나라의 經濟動向, 그 性格과 課題

全 哲 煥*

<目 次>

- I. 머 리 말
- II. 급격히 冷却된 經濟動向
- III. 經濟危機論概觀
- IV. 景氣沈滯局面의 性格
- V. 經濟社會의 課題

I. 머 리 말

1987년 6월 민주화승리에 따른 政治・社會發展, 1989년 9월 서울올림픽에 따른 긍지의 高揚, 그리고 1985년 10월 이후의 超好況勢 및 黑字基調에 따른 經濟의 先進化期待를 가지고 있던 우리社會는 1988년말에 들어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회의에 빠지게 된 것 같다. 政權의 正當性(legitimacy)이 25년만에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未清算五共遺産과 冷戰時代 理念對決극복에 실패한 때문이다. 또 階層葛藤 및 地域感情 그리고 정치부재로 인한 불안과 過消費 및 投機熱風에 기인한 不道德性이 만연하게 된 때문이다. 거기다가 政治・社會의 안정을 떠받쳐줄 經濟조차 성장을 급감, 물가불안 그리고 이유있는 상대적 격차심화에 대한 葛藤調整失敗때문에 활력을 잃고 沈滯勢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政治・社會가 民主化되고 안정되어 있어도 資本主義經濟는 무정부성때문에, 社會主義經濟는 中央集權의 統制때문에 변화는 있기 마련이고, 변화과정을 통해서 모순을 조정하고 새로운 차원의 發展으로 복원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모순의 극복과 새로운 發展으로의 복원이 政治・社會와 별개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政治社會의 調整能力이 없으면, 사회경제적 모순극복의 복원력이 발휘될 수 없다. 政治社會가 흔들리고 經濟도 안정성장이 불가능하면, 體制崩壞의 위험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사의 엄연한 경험이다.

따라서 최근의 우리 경제흐름이 어떤 성격을 갖는가와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

* 忠南大學校 經濟學科

는가 그리고 그 원인처방을 구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과업인 것 같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먼저 최근의 우리경제동향을 살펴보고 그 성격과 과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아울러 이 글을 읽는 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집필시간제한(약 2개월) 때문에 體系的 研究가 불가능하였고, 글내용이 지극히 敍述的 水準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차후의 研究課題가 더 크다는 것을 거듭 이해 바란다.

Ⅱ. 급격히 冷却된 經濟動向

(Ⅱ-1) 우리 경제는 1970년대부터 生産쪽에서는 제조업이, 需要쪽에서는 수출이 이끌어 가는 구조로 되었다. 이때부터 製造業生産力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평균적으로는 輸出이 경기를 좌우하게 되었다.¹⁾ 그런데도 공급쪽의 제조업생산증가율(전년

〈表 1〉 製造業 生産增加率 (單位: 전년동기비, %)

	1987	1988	1988			1989		
			10	11	1~11	10	11	1~11
製造業 生産指數	19.8	13.4	17.5	10.4	14.8	1.0	2.7	3.1
飲・食 料 品	10.1	10.1	9.1	2.6	11.0	6.6	7.9	7.3
纖 維・依 服	14.2	1.2	4.7	-2.5	2.6	-4.1	0.3	-0.1
製 材・家 具	13.9	15.1	26.2	12.0	15.0	5.4	3.1	4.0
종 이・印 刷	12.3	13.0	15.9	10.5	13.7	17.5	17.5	17.3
石 油・化 學	14.2	18.2	20.0	15.5	20.4	2.5	4.8	0.3
非 金 屬 鑛 物	13.0	11.4	16.3	14.0	9.9	4.8	4.3	7.0
第 1 次 金 屬	14.3	7.9	1.0	-2.2	10.7	16.7	18.3	6.7
金 屬・機 械	30.0	19.5	27.0	17.3	20.3	-2.3	-1.1	3.2
組 立 金 屬	5.6	4.7	10.2	1.1	5.5	8.6	13.1	0.3
一 般 機 械	30.6	11.1	2.0	20.0	7.1	12.9	16.3	12.6
電 氣 電 子	38.9	26.3	33.6	26.4	28.8	-11.5	-11.7	0.8
運 輸 裝 備	30.2	23.8	45.6	11.9	27.6	-2.6	-0.8	4.6
(船 舶 除 外)	(42.2)	(29.6)	(48.6)	(17.8)	(27.0)	(2.9)	(4.4)	(12.6)
製造業 出荷指數	19.2	13.2	15.6	10.0	14.9	3.2	3.7	4.1
製造業 在庫指數	11.0	13.4	24.7	20.3	14.2	15.9	18.3	17.7
製造業稼働率(%)	82.2	80.3	80.3	80.3	80.5	78.1	80.0	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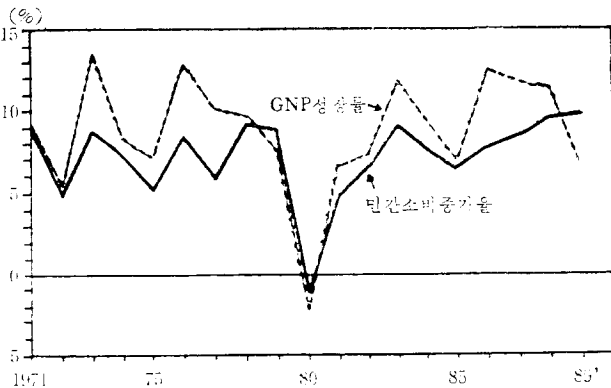
資料: 經濟企劃院

1) 총산출대비 제조업비중은 1975년 44.2%에서 1985년 50.0%로 높아졌다. 총수요대비 수출비중(중간수요 제외)은 1975년 19.2%에서 1985년에는 25.7%로 높아졌다. 제조업 상품만의 산출에 대한 수출률도 1975년 19.8%에서 1985년에는 22.5%로 높아졌다. 특

동기비)이 1988년 2/4분기와 4/4분기에, 특히 11월 이후 급격한 하강세로 돌아섰고, 1989년 2월에는 -1.6% 를 나타냈다. 우리 경제성장과정에서 제조업생산이 처음으로 불황세였던 1980년(2월 -4.7% , 연중 -1.7%) 이후 꼭 9년만의 감소세였다. 그리하여 1987년에는 제조업생산이 19.8% 였던 것이 1988년에는 13.4% , 1989년 1~11월 중에는 3.1% 로 계속 激減勢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 종이·印刷, 제 1 차금속만이 堅調勢를 지속하고 있을 뿐 i) 섬유류·의복 및 신발류는 1987년 14.2% 증가였던 것이 1988년에는 1.2% , 그리고 1989년 1~11월 중에는 -0.1% 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ii) 製材·家具, 石油化學, 非金屬礦物도 급감하고 있다. iii) 주력수출품이 속하는 金屬·機械도 격감세다. 一般機械·組立金屬·電氣電子·運輸裝備 등도 모두 격감세다. iv) 특히 電氣·電子製品과 運輸裝備는 각각 1987년 38.9% , 30.2% 증가했던 것이, 1988년에는 26.3% , 23.8% 로 그리고 1989년 1~11월 중에는 0.8% 와 4.6% 로 급감세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도 在庫는 누적되고 稼動率도 떨어지고 있으니 판매부진이 극심함을 알 수 있다(〈表 1〉 참조).

(Ⅱ-2) 製造業生産을 견인하는 수요쪽에서는 內需중 민간소비가 1989년 1~9월간 10.0% 증가로 GNP성장률 6.6% 수준(추정)을 크게 웃돌아 過消費勢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1〉 참조). 이것은 부동산 가격급등에 따른 자산효과²⁾와 임금인상 등 소득



〈그림 1〉 GNP성장률과 民間消費增加率 比較

資料: 韓國銀行

히 섬유 및 가죽제품은 1985년 수출률이 43.4% , 기타 경공업제품의 수출률은 62.6% , 중화학제품중 금속 및 기계제품은 35.7% 에 이르러 수출이 제조업의 경기를 좌우하는 경제구조로 정착했다(한국은행, 1975~1980~1985년 『점속불변 산업연관표』, 1989, pp. 25-32).

- 2) 韓國銀行(1989. 11)은 1989년 상반기중 富의 증대 즉 資本利得(1985년 12조, 1986년 16.9조, 1987년 47.1조, 1988년 98.5조원 추정) 효과에 의한 민간소비지출효과를 1989년에만도 2.7% 로 추정하고 있다.

〈表 2〉 1980年中 消費 및 固定投資動向과 展望 (單位: 전년동기대비, %)

	1987	88		89		
		1~9月	年 間	1~9月	3/4	年 間
總 消 費	8.2	9.8	10.0	9.8	9.7	9.8
民 間 消 費	8.4	9.8	9.6	10.0	9.5	9.7
政 府 消 費	6.9	9.7	11.8	8.8	11.3	10.1
設 備 投 資	21.3	10.6	10.1	9.7	13.4	10.7
製 造 業 ¹⁾	25.1	12.6	14.6	8.1	9.9	8.6
기 타 ¹⁾	16.2	7.3	3.4	12.5	19.3	14.1
建 設 投 資	14.0	13.9	13.3	16.3	19.6	16.7
固 定 投 資	17.4	12.3	11.8	13.2	16.8	13.8

資料: 韓國銀行

註: 1) 동행 및 선행지표를 이용하여 추정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家計消費의 내용도 고급화되어 必要的 支出³⁾ 보다는 選擇的 支出⁴⁾이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耐久財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중이 크게 상승한 반면, 非耐久財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다만 1989년 말에는 民間消費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 연중 민간소비증가는 9.7%로 예상된다. 분기별로 진폭이 있는 政府消費도 歲收의 초과징수 등으로 1987년에는 6.9% 증가했으나 1988년에는 11.8% 증가하였고, 1989년에는 10.1% 增加가 예상된다.

한편 內需중 固定投資는 製造業投資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非製造業設備投資, 公共部門投資 그리고 建設投資를 중심으로 1989년에도 13.8% 증가가 예상되어 1987년의 고정투자증가율 17.4%보다는 낮으나, 1988년의 11.8%보다는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전반적인 投資需要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設備投資 특히 製造業 設備投資增加勢가 1987년 25.1%에서 1988년에는 14.6%로 그리고 1989년에는 8.6%로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表 2〉 참조). 業種別로는 石油化學, 非金屬鑛物 등 일부 공급부족 업종을 제외하고 거의 전업종에 걸쳐 있다. 특히 金屬, 機械部門이 부진하다. 1989. 11. 14 金利引下조치에도 불구하고 景氣展望이 불투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生産力提高부진이 예고되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특히 製造業生産을 전인하는 輸出伸張勢가 급격히 둔화되어, 성장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되고 있다. 사실 우리 製造業은 많은 업종이 內需超過生産能力을 갖고 있다. 따라서 輸出이 안되면, 不景氣에 직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輸出(通關基準)은 1988년 1/4분기 35.7% 증가를 고비로 계속 내림세에 놓여있고, 드디어 1989

3) 음식료품 및 연초, 임료, 수도광열, 의료보건, 교육 등.

4) 의식, 여행, 교양, 오락, 가계시설, 교통통신 등.

〈表 3〉 分期別 輸出 및 信用狀來到 推移 (單位: 전년동기비증감율, %)

		1988년					1989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	출 ¹⁾	35.7	21.0	31.0	27.4	28.4	9.2	4.5	0.5	-1.8	2.6
신	용 장 내 도	26.6	26.1	22.4	17.4	23.0	5.2	9.1	10.5	1.5	6.6

資料: 관세청

註: 1) 통관기준, 1989년 연간치는 잠정치임

년 4/4분기에는 -1.8% 감소세로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 輸出先行指標인 信用狀내도액도 계속 내림세였으나, 1989년 2/4분기와 3/4분기에 다소 회복세였을 뿐 4/4분기에는 다시 나빠졌다. 금년 1월에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것 같다(〈表 3〉 참조). 더구나 물량기준으로는 1987년 輸出增加率이 23.8%였으나 1988년에는 13.0% 그리고 1989년에는 -6.4%로 급감하고 있다. 반드시 低價多量輸出이 좋은 것은 아니나 輸出不振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서, 침체의 주요 원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 섬유, 신발류가 부분적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나, 기술집약적 상품인 電氣電子製品, 자동차 그리고 일반기계의 수출이 크게 부진하다(〈表 4〉 참조). 鐵鋼金屬製品의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수출제한조치해제 및 동남아시아의 수요증가 때문이다. 纖維제품수출회복은 기존제품의 고급화 및 다품종 소량의 store sale을 개발한 데 기인한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신발류제품의 회복세는 美國市場의 재고감소 및 고가품 위주의 수주확대가 원인이다.

〈表 4〉 品目別 輸出動向과 展望(通關基準) (單位: 억달러)

輸 出 品	1988	1989	
		1~10月	年 間
輸 出 品	607(28.4)	505(4.1)	620(2.1)
輕 工 業 製 品	239(22.0)	203(3.4)	244(1.9)
纖 維 類	134(21.4)	119(7.6)	145(7.7)
신 발	34(24.9)	26(-9.7)	32(-7.0)
타 이 어	8(21.9)	6(-4.1)	8(-2.6)
重 化 學 工 業	327(36.8)	267(4.8)	335(2.4)
鐵 鋼 金 屬	54(34.5)	46(4.4)	59(10.9)
一 般 機 械	52(60.0)	45(10.4)	56(7.9)
電 氣 電 子	83(29.8)	75(13.9)	93(11.4)
自 動 車	36(21.7)	18(-30.9)	23(-34.8)
船 舶	18(54.7)	11(3.9)	18(2.3)

資料: 關稅廳

註: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반면에 輸出不振品目중 전기전자제품의 부진은 기존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부진으로 신제품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수출부진은 신모델개발지연에 따른 美國需要減少와 내수폭발로 國內販賣에 주력한 결과이다. 1989년 4/4분기 이후에는 내수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一般機械製品 輸出不振은 세계수요부진이 주원인이다.

반면에 輸入은 開放과 過消費로 1987년 20.9%(通關物量基準), 1988년 14.3% 증가했고 1989년에는 14.6%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1987년 이후 消費財 輸入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7년에 17.7%이었던 것이 1988년에 37.1% 그리고 1989년에도 36.4% 증가를 보이고 있다[韓國銀行(1989. 11. p. 21)].

이처럼 製造業生産 增加勢와 수출신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제조업설비투자가 부진한 데도 불구하고, 金融・保險・建設・레포트・기타 서비스업종은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所得 및 內需增加 그 중에도 정부 등 공공건설투자가 급증하고 민간소비 특히 선택적 소비지출의 급증세를 반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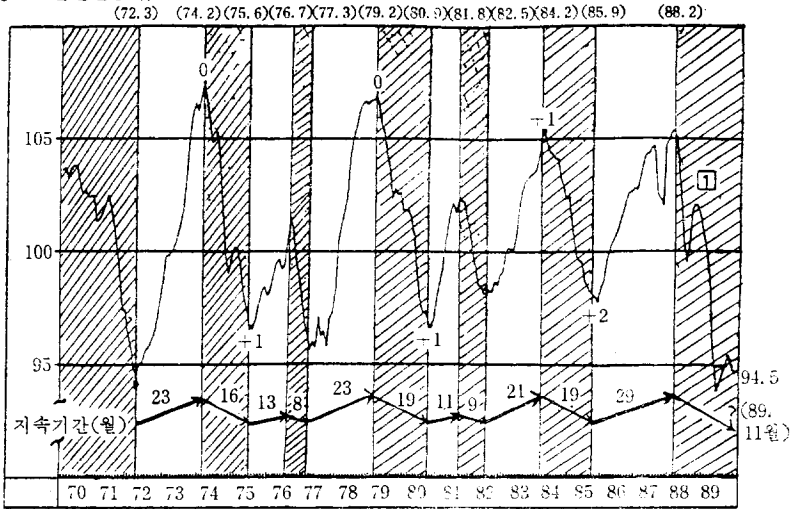
(Ⅱ-3) 製造業生産 增加勢急減과 격심한 輸出鈍化勢 때문에 경기도 급격히 냉각되었다. 우리나라 景氣는 3低와 美國經濟好調로 1985년 10월 이후 2년 반이나 超好況勢였다. 그 배경도 電氣電子製品과 自動車, 一般機械 등 기술집약적 제품의 경쟁력상승때문이며, 先進化기대가 한껏 부풀었었다. 그러나 1988년 2월부터 급격히 下降勢로 돌아섰다.

景氣同行(複合) 순환변동치가 1988년 5~7월중 일시적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다가 회복되었으나 11월 이후 다시 100을 밑돌고 1989년 3~4월에는 95 이하로 낮아져 침체세가 계속되고 있다. 기간으로 볼때 1970년부터 1972년 3월까지 2년이상 지속되었던 침체세 이후, 이번에도 2년이상 침체세를 계속하고 있어서, 어쩌면 최장기간의 불황국면으로 기록될 것 같다(〈그림 2〉 참조).

이처럼 침체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大卒者의 취업난・기능공의 부족이 심각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雇傭事情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中小企業의 활발한 창업활동과 서비스업(금융・보험・건설・레포트・기타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不況期인 1988년과 1989년에도 失業率은 2.5%~2.6% 수준에 머물고 있다. 꽤 다행한 일이다.

(Ⅱ-4) 不況勢下的 종합적인 경제성과는 제조업과 수출의 침체세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다. 1988년(GNP 12.2%성장)과 예측에 비하여 1989년 成長率이 急減(GNP 6.6% 추정)되었고, 1990년에도 이 수준이 예상되나, 潛在成長率인 8% 전후(±1%)(GNP기준임) [李相日, 李重直(1989, pp. 9-13)]보다 크게 낮

(동행 CI 순환변동치)



〈그림 2〉 우리나라의 景氣循環

지 않기 때문이다. 이만한 成長을 달성시킨 것도 內需堅調勢와 기타 서비스業의 活況 때문이다.

한편 經常收支는 1988년의 142억달러 흑자에서 1989년에는 그 1/3인 40억달러대의 흑자에 그치고 있다. 예측과 너무 차이가 나서 政策對應差跌이 과제로 되고 있으나, 통상마찰을 고려하면 수치상으로는 결코 비관할 것은 아니다.

物價中 도매물가는 일부상품(건설자재 등)의 초과수요압력과 비용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2%대 상승에 머물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1987년 이후 계속 연평균 6~7% 상승하여 불안하다(〈表 5〉 참조). 그러나 지표상의 물가보다는 物價指數 算定對象이 아닌 땅값이 1988년 이후 두해에 걸쳐 전국 평균 연 30%대로 상승했고 집값이 13%대로 상승해서 指標上的 物價不安을 넘는 감각물가초상승세를 보인 데에 심각성이 있다.

1986년 이후 연 3년째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후 최근의 景氣沈滯勢 속에서도 명목임금이 연 3년째 평균 20% 가까이 상승하여 소득으로 본 격차는 다소 서정될 것으로 보이나, 不動產價格・株價 등의 폭등세로 자산소유소득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들이 모두 不生産的 所得이라는 점에서 생산력 증감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不道德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資産(특히 땅과 집)所有의 期待喪失이 無產者 심지어는 知識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것 같다.

이처럼 최근의 우리 經濟動向이 20개월 이상 침체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견인력인 製造生産能力과 輸出競爭力의 회복전망이 어두운 데다가, 政治・社會 不安이 겹쳐서 매우 비관적인 시각에서 우리經濟를 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성급하게

〈表 5〉 部門別 成長率 展望 (單位：전년 동기 대비, %)

			1988			1989		
				1~9月	年 間	1~9月	3/4	年 間
G	N	P	12.8	12.0	12.2	6.6	6.9	6.6
G	D	P	11.8	11.3	11.3	6.0	6.5	5.9
總	消	費	8.2	9.8	10.0	9.8	9.7	9.8
民		間	8.4	9.8	9.6	10.0	9.5	9.7
固	定	投	17.4	12.3	11.8	13.2	16.8	13.8
民		間	21.3	10.6	10.1	9.7	13.4	10.7
商	品	輸	23.7	15.9	14.7	-5.3	-7.0	-6.3
商	品	輸	20.1	14.0	11.8	11.2	10.6	13.1
農	林	漁	-6.8	4.5	9.0	-0.4	-5.5	-1.6
非	農	林	12.6	12.5	12.6	7.1	8.1	7.5
製		造	18.3	13.7	13.0	3.5	4.3	3.8
建		設	9.4	10.8	9.4	13.6	17.3	14.6
都	賣	物	價 ¹⁾	2.7	1.2 ²⁾	2.3	1.3 ²⁾	2.2
小	賣	物	價 ¹⁾	6.1	5.4 ²⁾	7.2	5.0 ²⁾	6.2

資料：韓國銀行
註：1) 전년 말 월 대비
2) 1~10月간

도 中南美型的 후퇴를 들먹이며 自嘲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1985년까지 外債累積 成長때에는 일부 학자와 대중만이 위기를 인식했으나, 이번에는 오히려 政府와 企業, 특히 企業측이 危機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우리經濟局面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가졌고, 왜 급격한 침체세를 지속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무엇이 최근의 우리經濟의 課題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經濟危機論概觀

(Ⅲ-1) 원래 主流經濟學理論에는 경제위기(economic crisis)란 개념이 없다. 주류 경제학의 景氣變動論에서는 경기순환이 경기회복과 호경기 다음에 경기하강 그리고 불황에 이어 다시 경기회복세로 반복되는 4국면 밖에 인식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추세로써 成長이 정의된다. 이처럼 경제위기개념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경제의 순환적 성장에 대한 신념과 이론이 그것을 밀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재생산관계(체제)가 순환적 성장이 확실한 한, 체제붕괴 가능성까지를 내포하는 어떤 개념을 도입해서 그 상황, 인과 그리고 부르조아체제 보전

을 위한 연구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政界, 財界, 言論界는 물론 그리고 일부 學界에서조차 최근 2년간의 우리 사회·경제동향에 대해서 서슴없이 難局 또는 危機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최근의 우리 사회·경제동향을 경기순환국면상의 하강·불황세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원래 경제위기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학파는 자본주의 재생산 관계(체제)붕괴를 예견하는 政治經濟學이고, 그들의 변동론은 經濟變動으로 成長勢가 포함되며[金秀行(1986, pp. 31-3)] 그 과정상의 위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즉, 정치경제적 재생산관계가 전면적으로 붕괴되는 전반적 위기 또는 파국적 恐慌(panic)과, 자본주의 재생산관계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주기적 특징인 경기순환 즉 부분적 위기가 그것이다. 원래 자본주의의 생산에서 이윤에 대한 개별자본(기업)의 욕구는 사회적 노동분화의 객관적 필연성과 상충된다. 부분적 위기 또는 경기순환은 그 두 가지를 복원시키는 체제 고유의 방식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상당히 성장한 자본주의경제의 호경기에는 투자급증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높아지며 노동자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고 임금이 상승하는 과잉생산에 의해 초과공급(과소비와 투자)이 생겨서 제품판매부진 등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예견되면, 기업의 재생산활동은 위축된다. 이것이 경기 하강이며 심하면 불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업은 재생산관계를 복원하고자 제품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固定資本減價와 실질임금수준을 떨어뜨리거나, 임금비용을 상쇄시킬 만한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수요창출적 총수요증대를 시도한다. 경제외적으로는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 등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노동(조합)운동을 정치적으로 억압한다. 그리하여 이윤율하락경향을 反傾向으로 역전시킬 수 있으면, 경기하강세 또는 불황은 극복되고 경기상승 또는 호경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가 튼튼하면 이와 같은 내부변동을 통해 위기는 회복된다. 그러나 체제가 튼튼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 회복기는 점점 더 장기화되고 상태는 악화되며 장기침체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 경우만이 사실은 전반적 체제붕괴적 위기로 인식되고, 나머지는 자본주의 재생산관계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경기순환 즉 부분적 위기로 인식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1834년부터 현재까지 150여년동안 35번의 경기순환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두번(1873~93, 1939~41의 대공황)만이 전반적 위기로 평가된다[Mandel(1975, pp. 120-2) 및 Burns(<표 1.1>과 pp. 16-7)]. 1980년대의 세계적 경기하강이 다시 전반적 위기로 평가될 것인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위기는 자본주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방법론적 접근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인과유형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나는 경기하강 또는 체제붕괴적 경향과 이를 상쇄복원시키려는 反傾向의 합성운동개념으로 인식되는 현실 경기순환상의 침체 즉 위기의 可能性理論(the possibility of crisis)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여러 경향요인이 누적되면 전반적 위기가 발생한다. 또 다른 하나는 경향을 상쇄시키고자 하는 反傾向이 본래적 傾向에 종속되어, 이윤율저하경향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는 이론에 기초한 본질적 必然性理論(necessity theories)이다. 어쨌든 자본주의경제는 부분적이든 전반적이든 위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다음에는 이들 이론의 내용과 위기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최근의 우리 경제동향을 인식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런데 가능성이론에는 i) 과소소비론(underconsumption theories) 또는 경기침체론(stagnation theories)과 ii) 임금착취론(wage squeeze theories)의 두 가지가 있다.

(Ⅲ-2) 過少消費說은 경제공황원인을 個人消費의 부족에서 발견한다. 원래 자본주의 生産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임금 수준을 될수록 낮게 유지하려 하며, 資本生殘을 위해서 이 이윤을 技術革新과 生産擴大에 재투자하려고 한다. 이 과정이 곧 成長이기도 하다. 따라서 個人消費資金규모는 生産확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 때문에 공황이 생긴다는 說이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사회의 總生産物中 생산에 비하여 소비(수요)가 상대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이 있으며, 생산과 소비의 괴리가 확대됨에 따라서 소비재 판매부진→생산축소→生産財 수요감소→生産財 생산축소→불황이 발생한다는 논리이다. 더구나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억압받고 자본이윤이 재투자되는 것이 지속성을 갖는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외부상쇄(예, 군인, 관리, 지주, 목사 등 소비만의 계층, 군수품생산, 복지지출 등) 요인이 없다면, 不況과 沈滯勢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부상쇄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好況 등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說이다[金秀行(1986, pp. 67-8) 및 Kenway(1980), 이하 같다].

그러나 獨占段階의 자본주의에서는 경기침체로의 경향이 증대된다. 過少消費로 인한 경기침체에 당면했을 때, 정부는 總需要를 자극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 경우 獨占資本家は 경쟁기업처럼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계를 인상한다. 국가권력과 독점력간의 이런 상태가 인플레이션을 수반하는 경기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Shaikh(1978a, b)]. 만일 국가가 이런 정책을 지양하고 긴축정책을 펴게되면 경기후퇴 나아가서 공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過少消費說은 i) 消費財需要의 生産財産業不規制 ii) 勞動者の 향상적

過剩生産者地位 iii) 個人消費의 감소가 生産財産生産 減少誘引 등과 관련된 논리적 부적합성을 띠고 있다 [Marx(1961a, b)].

(Ⅲ-3) 다음 經濟危機可能性理論 賃金搾取(逆轉)論 또는 賃金上昇-利潤壓迫說은, 生産(고용)・投資 모두가 資本家들의 이윤동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임금착취 불능→利潤率低下가 생기면 자본가들이 投資・生産(고용)意慾이 감소되고 生産停滯와 失業增加 등 不況(위기)이 온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賃金上昇은 好況期의 노동력부족 또는 勞組勢力 증강때문이라고 설명한다.

賃金搾取(逆轉)論 또는 賃金上昇-利潤壓迫說은 임금과 이윤간에는 逆比例관계에 있다는 가설에서 시작한다(Marx學派, 宇野學派 그리고 新리카도學派 참조). 특히 이 학설의 기본가설의 논증⁶⁾내용은 賃金과 利潤의 代償關係(trade-off)에 근거하고 있다[Sraffa (1960) 및 Robinson and Eatwell (1973, 제 6 장 補論)].

그러나 이 學說中 好況期의 완전고용→임금상승→이윤율저하가설은 好況期 革新을 부인할 때만 성립하는 것인데 i)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는다는 점과 ii) 이 자체로 景氣循環發生 說明이 불가능하다는 약점이 있다. 다른 한편 勞組의 分配改善 鬭爭이 반드시 好況期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賃金上昇-利潤壓迫이 필연적 好況期 景氣下降(不況) 原因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학설은 상당한 현실성적 적합성을 지니고도 있다.

(Ⅲ-4) 다음 必然性理論은 마르크스의 잠재적인 利潤率運動에 기초한 低下論을 핵심으로 갖는다. 모든 자본가(기업)의 추진력은 이윤이며, 잉여가치는 이윤의 숨겨진 토대이다. 자본가는 가능한 한 많은 잉여가치를 추출하기 위해서 노동시간길이와 강도 특히 勞動生産性を 높여야 한다. 더구나 다른 자본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生産費를 절감해야 한다. 고정자본(기술) 증가가 이 두 목적의 해결책이다.

그러나 한 기업의 자본축적(기술)의 가속은 다른 저생산성기업을 희생시키며, 이윤율저하를 극복하고 市場獨占率을 높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이윤율을 저하시킨다. 상쇄요인이 있으면 다시 역전시키지만, 또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경기순환이 지속된다는 論理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면 이윤율저하경향이 현실화되고 그 과정은 최초에 이윤율 급감, 가속 그리고 침체에 직면한다는 說이다. 침체국면에서는 投資需要가 줄어들고 공급초과가 확대되는 한편, 신규투자의 부족으로 생산성상승이 실질임금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 단계에서 현상적인 過少消費와 임금상승-이윤압박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전반적 위기로 진행

6) 이 논증은 生産方法(技術)條件과 商品價格不變의 가정위에서만 유일하게 成立할 수 있다 [Steedman(1977)].

되지 않는 것은 유효수요조절(과소소비극복)과 생산성 한도내의 賃金인상을 제약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Marx(1961a, I 권 제25장 제1절)].

이 必然性理論은 자본주의경제위기론의 기본틀이고 本質인 셈이다. 過少消費와 賃金上昇-利潤壓迫說도 이 틀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전반적 위기에 이르면 취약자본의 대대적인 도태와 노동에 대한 강력한 압력(위협)이나 설득이 따른다. 이 과정이 構造調整인 셈이다. 더구나 開放體制下의 자본축적 과정에서는 製品週期 때문에 이 과정이 더욱 격렬하게 되는 것이다.

(Ⅲ-5) 지금까지 우리는 主流經濟學의 景氣變動理論에는 經濟危機概念이 학문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政治經濟學쪽의 경제위기론을 개관했다. 그 결과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는 利潤추구에 대한 資本의 속성과 사회적 노동분화의 객관적 필연성은 상충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 구체적인 현상이 過少消費說과 賃金上昇-利潤壓迫說임을 개관했다. 경제위기 국면은 부분적으로 過剩生産力을 보유하고 있을 때 생긴다. 이 이유로 생기는 위기는 部分的 危機(景氣循環)와 全般的 危機 즉 체제붕괴(또는 장기침체) 수준으로 구분된다는 점도 상기할 수 있다.

나아가 부분적 위기국면의 구체적 현상은 好況후 급격한 하강국면이고, 그 현상은 i) 빠른 속도의 생산감소, ii) 생산시설의 부분적 폐기, iii) 상품의 과잉생산, iv) 대폭적인 가격하락, v) 기업의 대규모 도산과 가동정지(해고), vi) 고정자본의 평가절하, vii) 실업률의 폭발적 증가와 임금하락, viii) 강력한 신용대출 제한, ix) 대규모 예금인출 및 빚독촉, x) 많은 은행자산과 높은 이자율이다[Tammer(1989, p. 94)].

한편 전반적 위기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세계를 帝國主義로 규정하고, 그 모순 때문에 資本主義를 혁명적으로 붕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帝國主義 단계의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은 i)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과 불안정성, ii) 사회주의의 비약적 성장, iii) 민족사회해방운동의 성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Tammer(1989, p. 123 이하)]. 그러나 이 이론은 경제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현 단계의 社會主義成長의 大失敗도 예견치 못한 도그마이기 때문에 고찰할 가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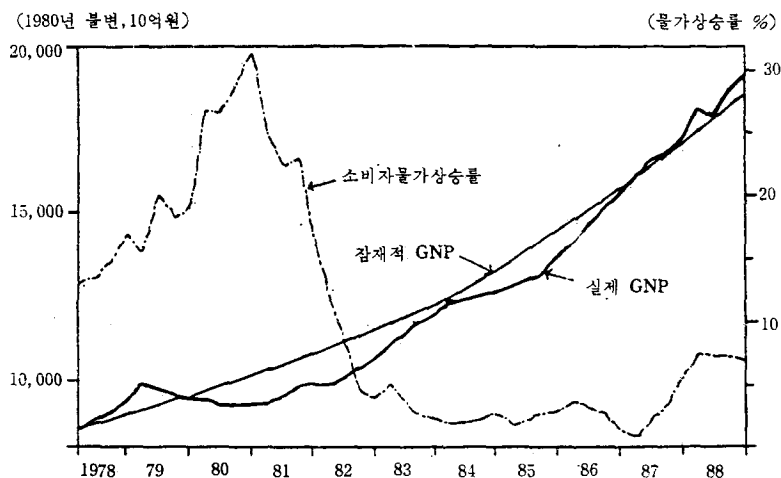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治經濟學의 經濟危機論을 수단으로 하면 최근의 우리경제 動向이 어떤 性格의 景氣循環 또는 위기인가와 그것의 과제를 고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다음에는 최근 우리 經濟의 景氣沈滯가 어떤 성격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Ⅳ. 景氣沈滯局面의 性格

(Ⅳ-1) 앞에서 우리는 급격히 냉각된 우리經濟의 動向과 經濟危機論을 개관했다. 이제 현상과 이론을 기초로 1988년 2월 이후 20개월이나 지속되고 있는 景氣沈滯局面의 성격과 原因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이번 景氣沈滯局面의 性格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1985년 10월 이후 1988년 1월까지 超好況勢와 黑字期調가 2년반 가까이 지속되었으니, 그동안의 景氣循環週기로 봐서 反動調整局面이 오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Ⅱ절 <그림 2>).

뿐만 아니라 1987년부터 實際 GNP가 潛在 GNP(8%±1)를 웃돌고 있어서[李相日·李重堦(1989, pp. 9-13)], 1986년 이후 1988년까지의 12%대 성장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고 潛在 GNP 수준으로의 복귀를 위한 調整勢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實際 GNP가 潛在 GNP를 초과했기 때문에, 物價上昇壓力을 받고 있다는 것도 예상가능한 일이다(<그림 3> 참조). 鐵鋼製品·建築資材 등 일부 원자재의 품귀현상이 그것을 예시한다.

이처럼 우리經濟가 지난 3년간 景氣循環週期上 초호황세였던 점 그리고 實際 GNP가 潛在 GNP를 초과했던 점으로 보아, 이번 景氣下降-沈滯局面의 진입은 經濟變動理論上 분명히 필연까지는 아니더라도 能力成長率水準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그림 3〉 實際 GNP와 潛在 GNP 比較

資料: 韓國銀行

調整局面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 蘇聯學者 H. Tammer가 규정한 危機現象 가운데 i) 생산감소, ii) 부분적 도산 외에는 다른 8가지 위기현상은 전연 일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景氣循環動向만으로 보면, 이번의 景氣沈滯를 經濟危機로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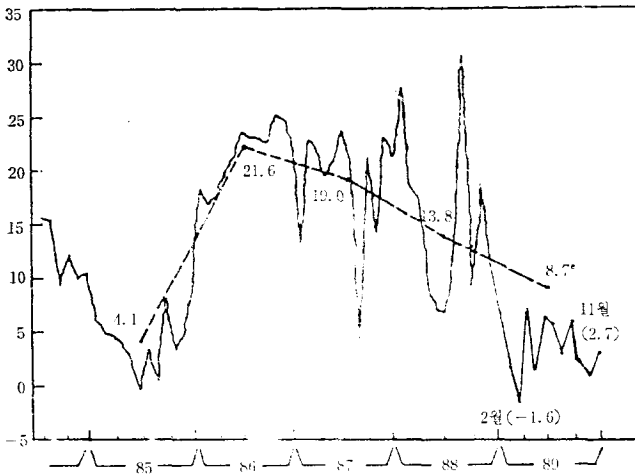
한편, 超好況・黑字基調가 對美輸出急増(黑字)에 기인한 것이어서 通商摩擦과 元貨切上壓力이 올 것이라는 것도 당백하다. 그 강도는 감당키 어려운 것이지만, 政府對應도 너무 낙관적이거나 對美・日 依存性の 脫皮力不足에 기인하는지 모른다. 그 동안의 勞動者의 團結權과 交渉權 그리고 行動權制約이 反民主的이고 反均衡的이어서 이를 인정하는 民主化熱望과 함께 勞使紛糾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선진국의 예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다만 정도만이 예상불능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製品週期로 봐서 輸出 잘 되는 商品을 技術開發없이 계속 팔아 먹을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高成長・個人所得急増으로 消費도 급증할 터이니, 內需産業 쪽으로 利潤追求사업을 벌일 것이라는 것도 당연하였다.

다만 우리는 勞動者와 使用者間의 交渉訓練不足을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雙方間에 언제 敵對的 階級關係를 벗어나 調整 가능한 非敵對關係(經濟主義 또는 勞動組合主義) 및 利害共同體(國民主義)로 이행할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우리 個別資本家(企業)가 장래에 대한 확실한 전망으로 얼마나 合理的이고 革新的인 企業活動을 해줄 것인지도 전망하기 어려웠다. 政府가 民主化過程에서 생기는 葛藤에 대하여 얼마나 政治力을 발휘해 줄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런 不確實性要因들에 기인하는지, 好況뒤에 不況局面이 닥치리라는 예상에 의거해 볼 때 1988년 2월 이후의 景氣沈滯 즉 製造業生産增加 및 輸出景氣 鈍化의 程度와 지속기간은 추세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製造業의 (實質) 生産增加率이 추세선(1989년 8.7% 추정)을 너무 밑도는 급감세이기 때문이다(〈그림 4〉 참조). 또 景氣沈滯期間이 과거의 최장기간(1963.2월~1965.2월 간 24개월) 보다도 더 길어질 전망이다. 이점으로 보아 景氣沈滯局面은 景氣循環上 단순한 하강-침체의 調整局面外的 성격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調整勢에 輸出主導 資本主義經濟의 體制的・構造的 沈滯局面이 중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최근의 景氣沈滯局面의 성격과 정도심화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Ⅳ-2) 이번 경기침체국면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關聯機關과 團體 그리고 學界에서 여러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요약하면 i) 貿易環境惡化: 원화절상・시장 개방・後發開途國의 工業과 輸出急伸張 ii) 勞使葛藤深化과 높은 賃金上昇: 노사분

(%)



〈그림 4〉 製造業 生産増加率 推移

資料: 韓國銀行

규빈발・單位勞動費用 급상승・平均勞動時間단축 iii)安定基盤의 동요:GNP성장률을 상회하는 민간소비증가(과소비)・인플레이션 期待心理擴散・金融(證券)資産과 不動産價格 급상승에 수반한 不勞所得過大・衡平感覺喪失과 제몹 찾기심화(葛藤) iv) 構造調整投資不振:제품주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투자부진・기업의 金融資産 및 부동산 등 資産投資치중・레포트 등 비실물투자급증이 그것들이다[經濟企劃院(1989.12) 및 韓國銀行(1989.11)].

이들 원인들을 Ⅲ절에서 개관한 經濟危機論에 비추어 보면, 지난날의 經濟變動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1985년까지의 景氣動向은 需給不均衡 즉 상대적 過少供給 또는 外部衝擊에 기인했던 調整勢持續性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의 景氣沈滯는 여기에다 i) 5.16 이후 五共까지 勞動運動의 억압적 축적가속과, 所得 특히 혁신없이 개선기대가 불가능한 資産所得隔差(그 가격폭등으로 심각하게 體感됨)에 수반한 對內葛藤, ii) 開放體制에서 무역불균형에 따른 赤字국의 所得移入과 赤字국의 所得移出加速이 빚은 國際經濟秩序의 葛藤이 표출된 복합성을 띠고 있다.

먼저 國內消費(특히 民間消費) 증가율이 GNP성장율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過少消費論은 배척된다(구체적 실증예시는 (Ⅱ-2)에 있으므로 생략함). 다음 勞使紛糾와 賃金上昇-利潤壓迫에 수반한 경기침체론은 그 理論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을 가지고 또 절을 바꿔서 설명할 技術革新 없이 호황업종 중심의 既存施設擴張에 치중해온 相對的 過剩投資論과 綜合해서 보더라도 상당한 현실적합성을 보인다.

勞使紛糾와 賃金上昇 그리고 美國의 통상정책관련압력이 경기침체원인이라는 구체적인 사례, 예컨대 勞使紛糾件數와 심각성, 생산성 상승률을 넘는 賃金上昇推移와 경쟁국과의 비교 등이 결과한 生産・輸出蹉跌 그리고 物價上昇壓力 등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고 있으므로 [經濟企劃院(1989. 12. pp. 39-40), 韓國銀行(1989. 11. pp. 2-7) 등]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대신 勞使紛糾와 賃金上昇 등의 결과, 제약은 있으나 단기적으로나마 어느 정도로 利潤壓迫을 초래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體系的인 分析은 못했으나, 우선 利潤率變動 寄與度 測定으로 볼 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기업의 (期待)利潤率下落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利潤率下落이 賃金上昇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景氣沈滯要因으로 제시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이들 요인이 利潤率下落에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주요 관심사로 될 수 밖에 없다. 다만 景氣沈滯 複合要因들 상호간에 어떤 相關性이 있는가를 엄밀하게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을 수 밖에 없다.

어쨌든 이런 利潤率下落은 政府와 企業의 對應으로 i) 投資萎縮 등 극복을 위한 革新, ii) 인플레이션 등 대중희생을 바탕으로 한 資本減價, iii) 獨占資本외의 中小資本淘汰 등의 복원력이 없으면 체제붕괴의 위기까지 초래한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가지 대응현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革新을 제외하고는 모두 經濟運用上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政府의 정치적 한계와 個別企業家의 경제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그 결과 그동안의 企業(製造業)收益率 변동추이를 보면 1986년 이후 3년동안 계속 악화되고 있다. 1986년의 製造業 收益率은 전년보다 1.3% 포인트 상승한 5.2%였다. 그후 계속 체감하여 1989년에는 1.8%(추정)에 불과하다.

製造業收益率을 계속 낮아지게 한 要因別 기여도를 보면, 內需쪽에서는 연 4년째 10% 포인트대의 上昇要因으로 작용했다. 반면에 輸出需要쪽에서는 1987년 4.9% 포인트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후 계속 체감하여 1989년에만 -1.2%포인트 下落要因으로 작용했다. 內需의 收益率 上昇作用中에서도 賣出數量增加가 8%포인트대 이상의 기여를 함으로써, 內需好況期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한다. 다만 그 추세가 떨어지고 있어서 바람직하기는 하나, 內需에 의한 금년의 수익율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輸出需要쪽에서는 換率要因이 收益率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으며 1986년에는 0.2%포인트 개선시켰던 것이, 1987년부터 악화요인으로 작용해서 1989년에는 -1.6%포인트 악화가 예상된다. 輸出數量減少도 1987년부터 製造業 收益率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輸出單價上昇이 收益率改善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競爭力面에서는 제약요인이 되어 수출물량감소를 초래했다.

〈表 6〉企業(製造業)收益率¹⁾變動分析 (單位: 기여도²⁾, % 포인트)

	1986	1987	1988	1989(추정)
收 益 率(%)	5.2	3.9	3.6	1.8
收 益 率 變 動	1.3	-1.3	-0.3	-1.8
收 入	13.3	16.9	13.5	9.2
內 需	10.2	12.0	10.4	10.4
製 品 價 格 要 因	-1.0	0.5	0.4	1.5
賣 出 數 量 要 因	11.4	11.5	9.9	8.8
輸 出	3.1	4.9	3.1	-1.2
換 率 要 因	0.2	-1.2	-2.2	-1.6
輸 出 單 價 要 因	0.4	1.8	2.7	1.9
輸 出 數 量 要 因	2.4	4.3	2.8	-1.3
費 用	-12.0	-18.2	-13.7	-11.1
材 料 費	-9.4	-13.9	-8.6	-6.2
價 格 要 因	2.0	-0.5	0.0	-0.1
數 量 要 因	-11.8	-13.3	-8.6	-6.1
人 件 費	-1.2	-2.2	-3.0	-2.4
1人 當 人 件 費	-0.9	-1.4	-2.4	-2.8
勞 動 投 入	-0.3	-0.7	-0.5	0.3
金 融 費 用	-0.3	-0.6	-0.6	-0.9
其 他 固 定 費 用	-1.0	-1.5	-1.5	-1.7

資料: 韓國銀行

註: 1) 수익율=(영업이익-금융비용)/매출액

2) 수익율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계산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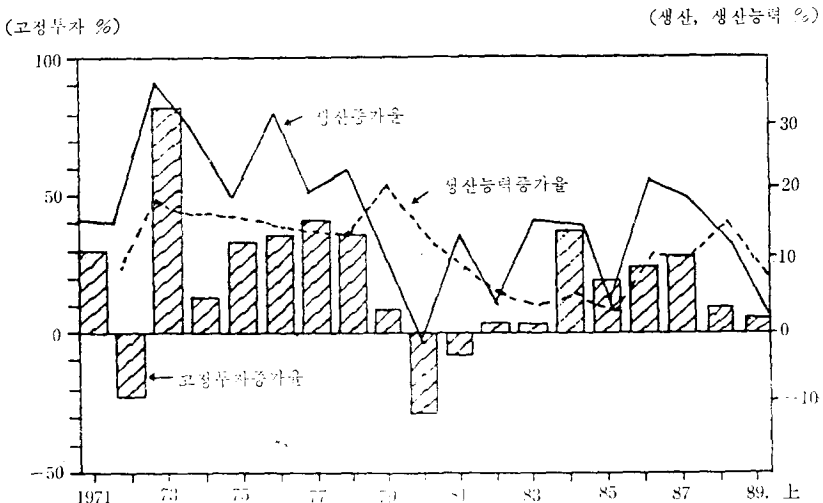
$$F_1/S_1 - F_0/S_0 = C_0/S_0 - C_1/S_1 \\ = C_0/S_1(a-b)$$

a, b는 다시 내수·수출별, 비용항목별로 물량 및 단가요인으로 분해

한편 收益率惡化要因으로 작용하는 費用側面은 1986년 이후 계속 -11%~-18%대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용측면 중 가장 큰 收益率惡化要因은 材料費上昇이다. 材料費가 수익율을 가장 악화시켰던 해는 1987년으로 -13.9%포인트나 된다. 그후 체감되고 있으나, 1989년에는 수익율을 -6.2%포인트 악화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人件費의 收益率惡化 기여도는 1986년 -1.2%포인트에서 1988년에는 -3.0%포인트로 체증하다가, 1989년에는 -2.4%포인트로 약간 둔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금상승으로 1人當 人件費가 수익율악화에 기여한 정도는 1986년에는 -0.9%포인트였으나 계속 체증되어 1989년에는 -2.8%로 추정된다. 그리고 金融費用과 기타 固定費用의 收益率惡化 寄與度도 계속 체증되어 둘을 합하면 1986년에 -1.3%포인트, 1987년과 1988년에는 동일하게 -2.1%포인트였던 것이 1989년에는 -2.6%포인트 악화시킬 것으로 추정된다(〈表 6〉 참조).

그 결과 企業의 주장처럼 政治經濟學的 經濟危機說中的 하나인 賃金(등 費用) 上昇-利潤壓迫說의 현실적 합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個別資本(企業)의 投資意慾萎縮은 철저히 勞使紛糾深化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i) 材料費, ii) 金融 및 기타 固定費用 그리고 iii) 통상마찰과 換率要因에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주장이 얼마나 觀念的인 편견인가를 엿볼 수 있다. 물론 종전의 家父長的 勞使關係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資本家の 심리적 위축과 함께 生産・輸出이 蹉跌을 빚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勞動生産性을 勞使紛糾件數와 期間 그리고 生産・輸出蹉跌을 중심으로 너무 강조해서는 자칫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도한 賃金上昇과 勞動忌避現象이야 당연히 자제되어야 하지만, 企業은 收益率 提高를 위하여 人件費의 마이너스 기여도 보다 더 크게 마이너스 작용을 한 材料費와 그에 버금가는 金融費用(利率引下에서가 아니라 設備投資資金不足 이상의 차입이자부담) 절감에, 政府는 적절한 通商政策과 財政金融連用을 통해서 탄력있는 경제운용에 한층 노력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에는 人件費 이외에 다른 費用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업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企業의 製品生産能力提高投資의 性格과 製品週期上 輸出動向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Ⅳ-3) 우리 企業의 生産能力提高 投資動向을 보면, 1986년 이후 3년간 수출급증 상품 중심으로 既存設備를 크게 증대시켜서 1988년부터는 生産增加率을 웃돌았다 (<그림 5> 참조). 그러나 新商品開發生産業種인 電氣・電子・運送裝備 그리고 纖維



〈그림 5〉 生産能力增加率과 生産增加率의 比較(제조업)

資料: 韓國銀行

〈表 7〉技術開發投資의 增加率 推移 (單位: 연평균증가율, %)

	83~85	86~89
製 造 業	82.5	24.0
電 氣 電 子	149.8	20.6
運 輸 裝 備	168.7	27.9
一 般 機 械	-19.2	39.7
織 維	121.3	6.9

資料: 韓國產業銀行, 『설비투자계획조사』, 각년도

註: 1) 정상가격기준, 83~88은 실적치, 89는 계획치

業種의 기술개발 투자증가율은 격감했다. 불황기였던 1983~85년간 제조업 전체의 기술개발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82.5%였으나, 호황기를 포함한 1986~89년간에는 24.0%로 뚝 떨어졌다. 電氣・電子・運送裝備 그리고 섬유부분은 더욱 심했다. 다만 一般機械만은 技術開發投資가 격증해서 바람직했다(〈表 7〉 참조).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競爭力이 높아 輸出主力商品이었던 것(반도체, VTR, 自動車, PC 등 사무기기, 전자레인지, 磁氣테이프)들이 競爭力下降週期에 도달한 작년부터, 우리는 主力商品不在 현상을 갖게 되었다. 이 때문에 무역환경 악화와 노사분규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침체국면에 직면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日本과 臺灣이 노사분규와 단위노동비용 급상승을 빼고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더욱 심각한 무역환경인데도 이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이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와 같이 기술개발부진이 製品週期에 도달한 既存 主力輸出商品을 대체하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을 잃고 輸出伸張이 정체 내지 둔화된 예를 보면, 모두들 1980년대 초반에 기술개발 확대에 따라 개발되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 개발지연으로 지금은 경쟁력을 잃고 高附加價值化에도 큰 진전을 못보고 있는 것들이다. 그 예를 보면, 半導體, VTR, 自動車, PC 등 事務器機, 전자레인지, 磁氣테이프 모두 1980년대 전반에 개발한 것이고, 輸出開始 時期도 거의 모두 1987년 이전에 끝나고 있다. 지금은 수출신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表 8〉 참조).

그런데 이중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이들 상품의 製造業體들이 대부분 防産關聯業體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勞使紛糾가 격심하지도 않았고, 賃金水準도 원래 높았기 때문에 임금상승이 採産性을 악화시키고 輸出競爭力을 약화시키지도 않았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라면 그것을 오히려 技術開發로 극복하고자 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 점은 아무래도 企業家가 변명할 수 없는 점일 것 같다. 이들 製造業들은 대부분 財閥企業에 속

〈表 8〉 新規商品의 開發 및 輸出推移 (單位: 억달러, %)

商 品 名	開發時期	大量生産 및 輸出 開始時期	輸 出 推 移			
			86	87	88	89.1~8월
半 導 體	83~86	84~87	12.0 (47.4)	18.5 (53.6)	19.2 (57.8)	23.1 (44.8)
V T R	79~82	82	7.5 (118.1)	12.1 (60.8)	17.7 (46.2)	11.6 (8.3)
自 動 車	81~84	85~86	13.8 (155.8)	28.1 (103.8)	35.9 (28.0)	14.4 (-30.1)
PC 등 事 務 器 機	80	84	9.7 (67.1)	15.8 (62.3)	25.2 (59.9)	16.6 (12.1)
電 子 레 인 지	80	82	4.4 (109.5)	6.4 (43.2)	8.4 (33.3)	5.6 (3.7)
磁 氣 데 이 프	75~82	80	4.6 (91.9)	5.2 (12.8)	6.8 (32.5)	5.3 (26.2)
合 計			52.0 (90.5)	86.0 (65.4)	123.2 (43.2)	76.6 (7.0)
其 他 輸 出			295.1 (20.7)	386.8 (31.1)	483.8 (25.1)	320.3 (4.4)

資料: 韓國銀行

註: 1) () 내는 증가율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開發投資보다는 金融資産取得 및 不動産 투자에 치중(財테크)하였기에, 저간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6년 이후 法人企業의 設備投資 不足規模는 대체로 7조원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資金調達은 1985년에 부족분의 1.4배, 1986년에는 1.8배, 1987년에는 1.7배였고 1988년에는 1.3배에 달하였다 [韓國銀行(1989.11, p.12)]. 1989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GNP 6%성장에도 불구하고 총통화 18%대 공급으로 총수요팽창 압력을 무릅쓰고 株價支持와 財테크를 도운 셈이다. 그리고 초과조달자금 운용이 退藏이 아닐 것은 분명함으로, 일부는 資金上昇分支給 등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며, 대부분의 나머지가 財테크로 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企業이 기술개발을 게을리한 것은, 資金不足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勞使紛糾과 資金不足만으로는 이유가 되지 않으며, 나머지 理由로는 企業家の 短見(myopia) 때문이거나 財테크에 의한 超過收益追求 밖에 없다. 만일 이점이 수긍된다면(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비록 反企業主義 목소리가 귀에 거슬리겠지만 어찌할 수 없다. 믿었던 進取的 企業家像은 무너지고 경제장래도 밝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V. 經濟社會의 課題

(V-1) 앞에서 우리는 우리經濟의 급격히 냉각된 경제동향, 이에 관한 危機觀의 적합성을 살피기 위해 經濟危機論을 개관하는 한편 이에 비추어 이번의 景氣沈滯局面에 내재한 본질적 性格이 무엇인가를 고찰했다. 비록 연구조사기간의 촉박때문이라는 양해사항이 있기는 하나 필자의 연구부족과 역량한계를 절감하면서, 잠정적이고 평면적으로나마 經濟變動論에 비추어 본 최근의 景氣沈滯因果를 살펴왔다.

그 결론은 최근의 沈滯局面을 단순한 景氣循環週期상의 下降調整局面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우선 그 격렬함이 추세를 벗어나고 있고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대내적으로는 利潤追求를 목적으로 하는 資本蓄積누적이 勞使關係를 악화시켜 蓄積과 分配葛藤深化를 야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黑字基調의 所得移入이, 편중된 赤字國(美國)의 과다 所得移出과 결합되어 葛藤으로 되고 있다.

이런 본질적 모순을 발현시키는 沈滯原因을 총수요면에서 보면, 그것은 國內消費需要不足은 아니고, 技術革新的 設備投資不足 및 製品週期에 상응하는 輸出商品開發不振(伸張率低下)이라 하겠다. 총공급측에서는 生産性增加鈍化 때문인데, 그 연유가 勞使紛糾로 인한 生産蹉跌과 총비용의 과다로 製造業의 採算性이 악화되어 생산을 감축하는 대신 財테크와 서비스업종에서의 期待收益 증대를 추구함으로써 新商品開發에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총비용을 증대시킨 것은 과도한 材料費, 임금비용상승 그리고 金融費用 및 기타 固定費用이다. 企業이 輸出需要不足과 國民經濟運用制約으로 인해 가지게 된 費用上昇分을 가격에 전가(인플레이션)해서 는 아니되는데, 우리는 新商品開發과 工業 등의 기술혁신으로 비용상승을 상쇄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난 3년간(86~88) 수출이 급증하면서 기존설비의 확장에만 주력하여 競爭週期가 끝난 製品生産投資는 과잉인 반면, 경쟁력 있는 設備投資不足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우리經濟가 위기라면 그것은 하나의 요인에 의한 것은 아니고, 景氣循環上 好況의 反動調整勢와 構造葛藤이 빚어낸 복합세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를 政治社會가 복원할 능력이 없다면 일단은 沈滯가 지속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발전이 결코 量的 成長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質的 變化 즉 “社會經濟의 총체적·지속적 상향운동(G. Myrdal)”임을 실감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비록 조정세와 구조변동세가 복합된 것이기는 하나, 政治經濟學

의 觀點에서 위기국면 현상으로 보면 i) 빠른 생산감소, ii) 생산시설의 부분적 폐기 외에는 적합성이 없으나, 資本主義發展의 本質的 矛盾 즉 葛藤深化로 보면 최근 우리경제의 沈滯局面이 부존적이거나 분명히 危機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가 體制復元力을 신뢰하고 景氣循環과 再生產構造의 矛盾克服과정을 모두 발전과정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체제붕괴의 위기일 수는 없다. 더구나 우리經濟社會의 中南美化 단정은 경제심을 늦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긍되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철저한 自信感의 결여이고 때로는 國民 특히 勞動者에 대한 威脅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世界資本蓄積過程上 대내외적 先進社會經濟構造로의 발전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調整期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내갈등의 핵심인 勞使關係를 보면, 後進資本主義가 先進化해 감에 있어서 더 이상 勞動者를 억압하고 家父長的 施惠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政治民主化가 진행되면 더 이상 權力만으로 870만명이나 되는 노동자(상시피용자)의 의사를 꺾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葛藤爆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先進資本主義發展過程에서 이미 경험한 바다. 우리가 예외이기를 바라는 것은 환상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 勞使를 i) 계급관계로만 인식하는 政治主義를 막 벗어나는 단계일 뿐이므로 ii) 利害를 조정가능한 非敵對的 關係(經濟主義 또는 勞動組合主義)로 더 큰 진통없이 진입하여 하루 빨리, iii) 利害共同體(國民主義)로 인식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제막 家父長的 勞使關係에서 벗어나려는 격렬한 葛藤이 두 계급에게 모두 損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인식하는 단계여서, 이 時期(짧으면 짧을 수록 좋지만)를 벗어나면 調和와 活力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무엇이 共同利害에 합치하는가를 체험 또는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혼란 그리고 政治社會의 不正義性 극복으로 國民에게 믿음울 심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음 대외적 갈등의 핵심인 通商摩擦(원화절상압력 포함)을 보면, 한 나라(美國)에 편중된 貿易黑字를 지속하면서 갈등심화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市場의 地域偏重과 종전의 競爭商品만으로 흑자기조 지속조건을 유지할 수도 없다. 지역 또는 질적 교역구조개편없이 통상마찰을 극복하고 貿易이 지속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한즉, 對內的 모순이 중첩됐는 데도 對外壓力에 적절한 대응을 못한 것은 중대한 政策失敗이다. 다만 對美輸出偏重에서 벗어나는 한편 世界的 蓄積構造하에서 지속적인 製品(技術)週期를 극복할 尖端產業 중심의 새상품개발을 가속하지 못하여 貿易障壁을 뛰어넘지 못한 것은 우리 책임이다. 그것은 비록 우리 經濟力으로 보아 과도한 기대일지는 몰라도 先進國進入의 필수요건이다. 그것은 또한 勞使關係에서

계급관계를 극복하고 利害共同體로 이행하는 필요조건이다.

이를 밑받침하는 對內環境要件은 政治民主化로 政治力을 회복하는 것이다. 民主化된 政治力이 없으면, 위기극복을 위한 國民의 共感帶 형성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所得은 물론 혁신없이 개선되기가 無望한 資產所有隔差를 國民적 동의수준까지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심각한 것을 방지하고 우리경제에서 제몫찾기 갈등을 해소하기 힘들 것이다.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일시적이다. 그것은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상승을 상쇄할 기술투자 등 구조조정을 게을리하고 不生産의 서비스업과 財테크로 實物部門收益率 감소분을 보상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해소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대립전통은 어쩌면 서로의 立地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쓰디쓴 교훈일지도 모른다. 원래 보통 人間은 理性的이기 보다 感性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社會經濟에는, 後進資本主義蓄積過程의 모순과 지난날 성장지상주의에서 소홀히 했던 經濟正義(衡平)不在의 시정 등 정치사회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진동이 폭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조속히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활력을 가져야 한다. 그 활력은 가진 계층의 많은 양보와 못가진 자의 요구 수용함의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도 노동자도 또 중간층도 經濟意志가 너무 쉽게 식어서는 안된다. 사람이 살고자 생산·분배(교환)·소비하는 한, 여기에 사람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그 意志야 말로 침체 위기국면을 뒤바꿔 놓는 動力이다. 이점에 유의하면서 과연 資本主義高度段階가 民主主義와 共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희망을 밝히고자 한다.

(V-2) 오늘의 우리 經濟學徒는 대부분 경제학의 과제가 “稀少資源의 효율적 배분(L. Robbins)” 또는 생산·분배(교환)·소비 등에 수반한 능력확보에 제한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의 과학성 확보를 위해서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결코 정치사회와 분리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번의 우리經濟의 沈滯局面이 가지는 특성이 이를 잘 말해 주는 계기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 經濟學은 “民主主義의 요체인 民權과 政治的權利平等을 資本主義의 요체인 사회경제적인 機會不平等(이 야기하는 經濟變動因果)과 결부시키려는 시도가 매우 미숙한 단계에 있다 [Tawney(1982, p. 9)]”. 그리하여 오늘날의 우리 경제학은 政治社會와 결부된 經濟現象을 설명하고 전망하며 대응하는 데는 거의 무력하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所有隔差問題와 勞使關係問題와 결부된 經濟變動因果이다. 資產所有隔差가 次世代에 있어서는 經濟的 機會不平等의

原因이고 勞使關係不平等이 社會問題를 넘어 經濟成長發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비록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경제학적 연구대응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는 해도 엄연한 현실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는 所得隔差를 要素價格理論으로 설명하려는 수준에 머물고, 資產所有가 所得隔差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근본요인 인데도 所有問題를 설명하기 꺼리고, 또 되도록이면 외면해 버린다.

더군다나 우리경제가 産業化의 急進展과 함께 資本蓄積이 가속화되면서 資本(企業)家와 政治支配層은 두터워지고 있으나, 그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집단이 i) 아직 대부분 1세대에 머물고 있어서 자연 世代交替도 없고 ii) 이들 集團간의 혈연결합때문에 다음 世代에 있어서도 階級固着性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勞動者階層 나아가서 中産層까지도 현재의 낮은 社會經濟的 地位때문에 장래에 대해 확고한 기대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勞動組合運動과 급진계층의 움직임이 體制否定에까지 이를 수 밖에 없는데도, 우리의 經濟社會學은 여기에 대한 연구와 대응이 아직은 매우 미흡하다. 나아가서 이에 대한 이해도 높지 않다. 그 결과 계층이동의 고착성과 不平等에 대한 異議를 「성공하지 못한 계층의 시기」 또는 左傾이라고 몰아부치는 경우도 본다.

그러나 계층이동의 고착화는 人的 資本을 증시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地位上昇 기대감을 상실시켜 民主主義의 力動性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때로는 體制否定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난날 先進國이 勞使葛藤 등의 위기에서 탈출하고 장기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높은 社會的 移動性(social mobility)이었다. 社會學者이며 經濟學者인 V. Pareto는 社會的 移動性에 수반한 活力을 “엘리트의 순환(la circulation des élites)”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당면한 오늘의 고통은 위에서 말한 내용에 비춰볼 때, 분명히 經濟學이 그 科學性 때문에 政治社會問題와 담을 쌓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의 부당성을 말해 준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沈滯局面에 내재하는 對內的 原因의 핵심인 勞使關係改善에 대한 소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최근 2년간의 勞使紛糾急増과 높은 임금상승률은 資本(企業)家에게 우리경제상황을 위기로 인식할 만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자본)가는 정치적 힘으로 노동운동을 억압했고,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수용할 만한 객관적 조건이 충분하여 최근과 같은 대내적 經營條件惡化를 경험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어느 나라도 산업화 초기 또는 중기단계에서는 우리보다 더 격렬한 노사갈등을 경험했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葛藤을 體制內로 受容

하여 産業平和를 달성했었다 [金龍瑞(1988)].

노사갈등의 체제내 수용은 첫째로 격렬한 노사분규를 새로운 秩序形成의 고통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노사분규를 政府와 기업(=자본)가측에서 體制否定으로만 이해하고 分斷國家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또다시 民主化推進 이전으로 회귀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고통을 승화시키지 못하고 장래로 연기시키게 될 것이다. 더구나 협상전략으로써 企業拋棄意思를 보이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진실로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資本(企業)家가 아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政治圈도 같다.

둘째는 勞使紛糾로 기업도산과 위축을 경험하며 산업성장둔화를 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값비싼 댓가이기는 하나, 두 당사자간에는 새로운 勞使關係位相定立의 결정적 계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바라는 것은 아니나, 인간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실성 이해가 매우 떨어지므로 최근의 勞使紛糾에 대해서 결코 비판할 것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이해도 제고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投資意慾이 위축될 필요가 없다. 조만간 對立關係에서 利害調整可能關係로 이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째는 先進國의 産業平和定立過程에서 가장 깊이 이해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政治秩序形成이다. 이른바 勞動階級 理念政黨의 발전이다. 우리는 해방후 분단국의 처절한 이념대결로 노동자계급 이념정당내지 진보단체조직이 정치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배격되었다. 오직 保守政黨만이 존재할 뿐이다. 法律的・政治的 制約이 아직도 엄존한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할 理念政黨의 불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분단과 정치상황 때문이었다.

이제는 선진각국의 勞動黨(영국), 社會民主黨(독일), 社會黨(일본)의 발전이 노동운동의 체제내 수용을 촉진시켰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이를 수용할 분위기와 조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써는 노동계급이해를 대변할 理念政黨 수용만으로 노사분규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노사간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질서가 형성되고, 경제가 좀더 성숙하여 노동자를 비롯한 개인이 사생활 중심의 합리주의를 추구하게 되면, 理念政黨의 대변만으로도 갈등이 조정되는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야말로 勞使關係發展 세 단계중 利害調整可能段階(勞動組合主義)를 넘어 利害共同體段階 즉 國民主義로 이행하는 최종 단계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의 정착이야말로 社會動力性을 높이는 길이다. 엘리트의 순환을 약속하는 하나의 방향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利害共同體의 勞使關係定立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政治的 民主化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政治的 民主化는 冷戰分斷固着의식과 법률제도하에서는 완성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할 시간과 國民의 意志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은 필연에 가깝다. 期待를 걸 만함으로 결코 좌절하거나 經濟危機局面을 勞動者에게 떠 넘기고 불굴의 革新的 企業意志없이 安住해서는 안 된다.

革新的 企業精神이 생동하는 한, 勞使關係와 貿易環境惡化때문에 景氣沈滯가 장기화되거나 體制危機로 진전될 수는 없다. 革新的 企業家は 이런 환경악화를 스스로 수용하고 소화하는 힘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의 현실화는 바로 技術革新을 통한 尖端商品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이다. 政府도 스스로는 물론 企業의 研究開發促進支援을 가속해야 한다. i) 技術開發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등 조세유인과 ii) 財政의 技術開發支援比率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iii) 業界研究組合活性化 및 iv) 정부 차원의 中小企業技術開發支援 조직인 生産技術研究院의 地方地域 조기확대 등이 그 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보면 벅차다. 그러나 손쉬운 蓄積手段인 財테크와 製品週期를 넘긴 제품생산능력 확장에만 치중한다면 反企業主義 극복은 물론 勞使關係 극복을 위한 기반조성 그리고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國際貿易環境惡化에 도전할 수 없다. 어차피 國際經濟關係에는 자비심이 없다. 우리 經濟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도전은 더욱 세차진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尖端産業(技術)製品의 經濟的 성격을 「需要不足 때문에 팔지 못하는 상품이 아니라, 만들지 못해서 못파는 상품」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물론 技術的 概念과는 틀리지만 가장 실감나는 정의일 것이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우리 資本(企業)家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政治社會의으로도 “소년기에는 가끔 동지였던 民主主義와 資本主義가 일단 成年이 되면 共存하기 어려운 본질〔Tawney (1982)〕”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政治的 民主化 및 勞動階級の 體制內受容 그리고 經濟的 正義에 동의하고 革新的 投資와 生産을 계산하는 進取的 資本家精神이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 따라서 결코 지금의 침체를 中南美化로 비하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參 考 文 獻

1. 經濟企劃院, 『1990년 經濟運用方向』, 1989. 12.
2. 金秀行, 『經濟變動論』, 서울: 比峰出版社, 1986.
3. 金龍瑞, 『後發資本主義國家의 勞使關係: 獨逸과 日本의 比較』, 서울: 經濟社會開發院, 1988.

4. 金鐘貴, 「不變產業聯關表에 의한 韓國經濟의 成長要因分析」, 韓國銀行, 『조사통계월보』, 1989. 8월호.
5. 李相日・李重植, 「우리나라의 潛在的 GNP推定」, 韓國銀行, 『조사통계월보』, 1989. 7월호.
6. 韓國銀行(調査 第1部), 『1990年 經濟展望과 政策方向』, 1989. 11.
7. 丘藤釗, 『現代の勞動運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1.
8. Tammer, H., (김일영 역), 『도해 정치경제학 I : 자본주의편』, 동녘, 1989.
9. Tawney, R.H., (金鐘徹 역), 『平等』, 서울: 한길사, 1982.
10. Bernstein, M.A., *The Great Depression: Delayed Recovery and Economic Change in America, 1929~3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11. Burns. A.F., *The Business Cycle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12. Kenway. P.M., "Marx, Keynes and the Possibility of Crisi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4(1), March 1980, pp. 23-36.
13. Mandel, E., *Late Capitalism*. London: Humanities Press, 1975.
14. Marx, K., *Capital*,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1 (a).
15. —, *Theories of Surplus Value*, Part 2, London: Lawrence & Wishart, 1961(b).
16. Robinson, J., and John Eatwell,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 (Revised ed.), Maidenhead-Berkshire England: McGraw-Hill, 1973.
17. Shaikh, A.,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Crisis Theories in U.S. Capitalism*, 1978(a).
18. —, *Political Economy and Capitalism*, 1978(b).
19. Sraffa. P.,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20. Steedman, I., *Marx after Sraffa*, London: New Left Books, 1977.